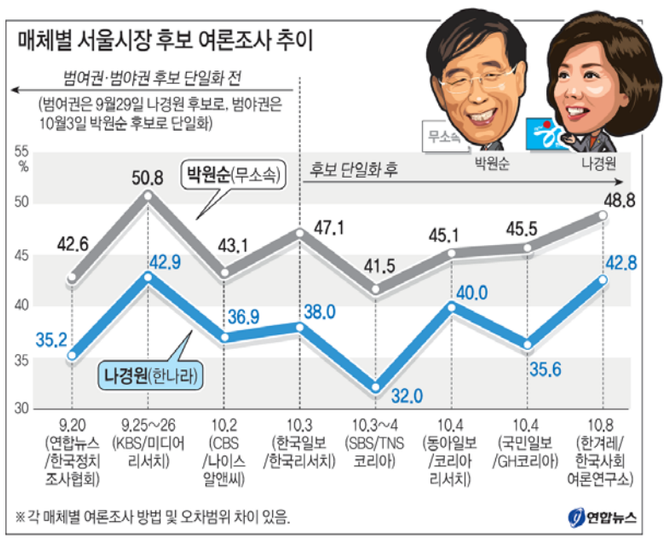
朴-羅 격차 6%P로 좁혀져

관훈클럽 첫 토론회 기싸움 팽팽

한나라 10년 서울시정 책임 공방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한참을 앞서가던 야권 단일후보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겨레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일 서울지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 이날 공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에 따르면 박 후보는 48.8%의 지지율로 나 후보(42.8%)에 6%포인트 앞섰다. 이는 지난달 말께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보다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 좁혀진 것이다. 특히 적극 투표층에서 나 후보(47.6%)와 박 후보(48.6%)의 지지율 격차는 1%포인트로 팽팽했다.

이 같은 안갯속 판세 속에서 두 후보는 이날 첫 토론회를 갖고 진검 대결을 벌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박 후보의 병역특혜 의혹과 나 후보의 재산 증식 의혹 외에도 서울시정 정책 공약, 안보관 등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 서울시정 10년 평가=박 후보는 "한나라당은 지난 10년의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런 과정 없이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10년간 시정에 대해 비판할 점은 있지만 그 시기에는 그런 시정이 적합했다"며 "이 전 시장 시절에는 대중교통 체제를 혁신해 선진국에서도 배우고 있고 오 시장 때는 와이셔츠를 2~3일씩 입을 정도로 공기 질(質)이 깨끗해졌다"고 반박했다.

시장의 주요 임무인 '갈등 조정자' 역할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 갈등이 끝없이 커져 왔다"며 "재개발에 반대하는 시민 5명과 경찰이 억울하게 불에 타 사망했고, 무상급식 문제로 130억원이나 드는 주민투표를 했고 보궐선거까지 하게 됐다"고 공격했다.

◇안보관 공방=나 후보는 박 후보가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참여연대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서신을 유엔에 보낸 것을 놓고 박 후보의 안보관을 파고들었다.

이에 박 후보는 "저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를 신뢰 못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왜 정부가 신뢰를 잃었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정책 공방=서울시 재정건전성 회복, 수중보 철거 문제 등 정책 사안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나 후보는 "박 후보가 서울시 부채감축 계획을 내놨는데 재산임대수익을 어떻게 올리고 국세청 소관인 체납액을 어디서 걷어오겠다는 말이냐"고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지방세 중 서울시가 걷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재산임대 수입도 알뜰하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전시성 토건사업과 SH공사를 개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양화대교 완공 문제에 대해 "70~80% 완공됐는데 흉물스럽게 놔둔다는 것이 책임 있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공약이냐"고 따졌고 이에 박 후보는 "아치를 하나 더 세우기 위해 1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느냐. 시민 판단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책선거 다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무소속 박원순 후보, 무소속 배일도 후보,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 후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이진성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朴 '병역 의혹' 羅 '재산형성' 쟁점화

安風-朴風 대결 가시화 주목

10·26 재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사흘 앞둔 10일 한나라당은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병역 의혹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했다. 이에 야권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을 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범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직간접으로 개입되면서 박풍(朴風)과 안풍(安風)의 대결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朴 병역 vs 羅 재산=이것저것 들춰보던 한나라당이 박 후보의 '병역 의혹'에 모든 것을 건 모양새다. 논란의 핵심은 '양손(養孫) 입적을 통한 병역 특혜' 의혹이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가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갔다고 주장한 1969년은 박 후보가 만 13세, 그의 형이 만 17세 때로, 형이 병역에 편입되기 한해 전"이라며 "형이 만 18세가 넘으면 병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박 후보를 양손으로 입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1969년 4월 작은할아버지 아들의 사망 통보를 받고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박 후보를 입적시켰다"며 "한나라당은 반인륜적인 흑색선전을 그만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 후보의 재산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박 후보 측은 네거티브전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나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산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나 후보의 재산은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로 총 40억5757만원이 있고, 절반에 해당하는 20억5691만원이 금융권 예금이다. 나 후보는 특히 지난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중구 신당동 상가를 약 30억원에 팔았으며 시세차익이 13억원 안팎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안철수 대결=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구도가 형성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만 박 전 대표의 대응이 소극적이다. 박 전 대표는 재보선 지원 선언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9일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찾았다. 또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서울뿐 아니라 11곳에 달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순회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집중하다가 패배할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권 '박원순 구하기'

與 네거티브 공세에 '누워서 침뱉기' 일침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에 대한 여당의 공격이 거세지자 야권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병역 의혹 공격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이 병역기피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소속의 우상호 캠프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호적에 1969년 양손 입적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그 과정을 정확히 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두 분을 병역기피 사범으로 호도하는 것으로 지나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으로 13억원의 시세 차익 얻은 (나경원) 후보가 시민후보의 월세를 문제삼고 있고 이등병 집권여당 대표가 시민후보의 병역문제를 문제삼는 이상한 선거"라며 "네거티브는 시민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 측 송호창 대변인은 "작은할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 입양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치적인 목적의 반인륜적인 흑색선전을 그만 하라"고 촉구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황식 총리, 정운찬 전 총리 등 현정권 인사들의 병역면제 사실을 나열하면서 "한나라당의 병역문제 언급은 자승자박"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 '박근혜식 복지' 채택

의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권고적 당론

한나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평생 맞춤형 복지와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박근혜식 복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추인된 평생 맞춤형 복지는 ▲육아종합정책(1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2단계) ▲일자리와 주거보장(3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4단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가 표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정진섭 당 복지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의총 발언에서 보육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촘촘하게 짜인 보육시스템을 만들고 취약지역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며 "의무교육 연령을 더 어린 나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당론은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당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박 전 대표의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런 내용의 복지정책을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는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변경이 상대적으로 쉬운 권고적 당론으로 추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FTA 비준안 조속 처리 요청

도심 임대·소형아파트 건설 활성화

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시정연설 다음날부터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미 의회가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이행법안이 통과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국익'을 고려해 시급히 비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운영 핵심기조인 공생 발전과 관련해 "경제 주체들의 탐욕을 억제할 수 없는 승자독식형 경제 체제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보금자리 주택(보급형 아파트)'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도심 지역에 소형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 사회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고졸 채용 비율을 높이고 공공 부문에서 기능인재 추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이날 한미FTA 비준안 처리 시기에 대해 "목요일(13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에서 비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납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준주거지역 (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급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수완지구 상가 분양 임대 전문
학원·병원
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안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